



전남 공공배달앱 '먹깨비' 출시 2년만에 성장세 '급제동'

올해 들어 실적 하락...회원수 60% 증가에도 매출은 '뚝'
콘텐츠 확충 부진·민간앱 '무료배달' 도입 등 악재 산적
실적 악화 타개·자생력 강화 위해 콘텐츠 확충 등 절실

출시 이후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전남 민·관 협력형 공공배달앱 '먹깨비'가 최근 실적 하락으로 성장세에 급제동이 걸렸다. 실적 악화 타개와 자생력 강화를 통해 민간배달앱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콘텐츠 확충 등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먹깨비는 2022년 7월 14일 출시 이후 지난달 말까지 누적 가맹점 9천861개소, 주문건수 70만4천409건, 매출액 173억5천500만원을 기록했다.

당초 지난해 목표로 잡았던 매출액 100억원도 같은 해 8월 일찌감치 뛰어넘었고 가맹점 목표(7천개소 확보)도 연말 기준 1천779개소나 초과 달성했다.

누적회원 수는 9만9천963명으로 전남 인구 중 5.5%가 먹깨비 회원인 셈이다. 전남지역 고령인구가 26.4%에 달한다는 점에서 청년·중장년층 이용 비중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강진군·진도군에서는 먹깨비가 가맹점수가 민간배달앱을 뛰어넘으며 배달 플랫폼 선점에 성공하기도 했다. 국내 대표 민간배달앱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각각 2010년·2012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점을 감안할 때 후발 주자인 먹깨비가 선점 구도를 깬 것은 상당한 성과로 분석된다.

소상공인 이익 창출과 소비자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출시된 먹깨비는 민간업체(주먹깨비)에서 운영하고 도와·시·군이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을 담당한다. 민간 배달앱(최대 15%) 대비 낮은 중개수수료(1.5%)는 물론, 가입비·광고료도 없다. 지역화폐 결제도 가능하다.

이처럼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윈윈'하며 승승장구하던 먹깨비는 최근 들어 실적 상승에 제동이 걸렸다.

실제 지난달 먹깨비 주문건수와 매출액은 각각 3억6천799건, 9억1천만원으로 1년 전 같은 달(주문건수 4억2222건, 매출액 10억 700만원)보다 각각 87%, 149% 감소했다. 같은 기간 먹깨비 누적회원수가 9만2천118명

에서 9만9천963명으로 60% 이상 증가했음에도 매출액은 오히려 줄었다.

올해 1·2월 실적 역시 마찬가지다. 1월과 2월 회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3%, 91% 증가한 반면, 1월 주문건수와 매출액은 각각 60%, 56% 늘어난 데 그쳤다. 특히 2월 들어 주문건수와 매출액은 각각 10%, 11% 하락했다.

이처럼 실적 악화가 뚜렷하지만 콘텐츠 강화 대책은 미진한 실정이다.

먹깨비가 지난해 8월 도내 농수산물을 배달하는 로컬상품 서비스를 출시했음에도 8개월이 지난 현재 판매 품목은 11개에 불과하다. 실적도 초라하다. 지난달 말 기준 누적주문건수는 25건, 누적매출액은 42만6천700원에 그쳤다. 월 평균 매출이 50만원 안팎에 머물고 있다.

당초 2023년까지 확충기로 한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의 경우 아직까지 운영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 최소 1개 전통시장과 협의를 끝내고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지만, 다양한 전통시장과 상품 구비 등 인프라 확충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국내 대형 민간배달앱(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이 최근 '무료 배달'을 앞세워 점유율 확대에 주력하고 있어 먹깨비 실적 개선은 녹록지 않을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중 지역화폐 결제 시 3~5% 배달앱 포인트 페이백 이벤트와 포장할인 확대 등을 시행하고 AI·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홍보 멀티미디어 메시지(MMS)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점주 자체 마케팅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먹깨비 자생력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할인쿠폰 등 먹깨비 프로모션·홍보를 위해 지난해에만 12억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는 지난해 먹깨비 매출 128억3천300만원 대비 9.8% 수준이다. /양시원 기자



“초심 잃지 않고 지역민과 소통” 23일 오후 광주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열린 '제22대 광주·전남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합동 축하 인사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당선자와 지방자치단체장, 시·도·기초의회 의장단, 각급기관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광주·전남 총선 당선자들 “상생 발전” 한목소리

광주매일신문 등 7개 언론사 공동주최 ‘축하 인사회’ 성료

제22대 광주·전남 국회의원 당선자와 유관기관 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상생 발전을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제22대 광주·전남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합동 축하 인사회’가 23일 오후 2시 광주상공회의소 7층 대강당에서 광주·전남 당선자 18명, 지방자치단체장, 시·도·기초의회 의장단, 기관장, 광주상의 25대 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화보 5면
“광주·전남 상생 발전을 위하여”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광주매일신문과 광주MBC, KBC, 광주CBS, 뉴스1 광주·전남, 남도일보, 전남매일 등 지역 7개

언론사가 공동 주최하고 광주상공회의소가 주관했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군공항 이전, 인공지능 산업육성법 제정, 의과대학 설립 및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 등 현안 과제를 조기에 국정에 반영해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 광주·전남을 발전시켜 주시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치, 교육, 문화, 복지 등 어느 영역 하나 힘을 보태지 않으면 광주의 변화와 발전은 힘들다”며 “국회 17개 상임위에 골고루 안배돼 광주의 변화와 발전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광주·전남의 AI, 전남의 우주항공 산업을 위해 광주·전남 18명의 당선자 모두 관심과 소통, 연대와 협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총선 당선자들은 상생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민행배 당선자(광산읍)는 “광주·전남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 계속 응원해달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군택 당선자(광산갑)는 “군공항 이전 문제는 광주의 최대 현안이자 전남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주제다. 모두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문금주 당선자(고흥·보성·장흥·강진)는 “늘 연구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민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당선자(해남·완도·진도)도 “지역민과 소통하고 낙후된 광주·전남을 위해 예산을 가져오겠다. 광주·전남 모두 윈윈이 돼 잘 하겠다”고 다짐했다.

마찬호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장은 견배사를 통해 “지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역 민생 경제를 반드시 살려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선강 기자

Today	
교통체증 유발하는 ‘드라이브스루’ 6면	
빛고을아트선, 새도약을 꿈꾸다 14면	
26일 황선홍 vs 신태용 ‘지략대결’ 16면	

2024

광주·전남 관광아카데미 원우 모집

6월 5일 개강 | 특강 5회 · 2박3일 선도 관광지 견학

광주·전남지역자치단체의 관광 관련 업무 담당자 및 관광산업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관광아카데미는 실무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교육 과정으로 이론 및 국내 관광 선도지역 견학 등 현장 학습 위주로 진행됩니다.

광주매일신문이 개설한 ‘광주·전남 관광아카데미’에서 전문지식을 통해 관광 산업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의 밝은 미래를 여는 주역이 되십시오. 광주·전남 자치단체와 민간축제위원회, 행사 기획사, 관광에 관심있는 시·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모집인원** 50명 안팎
- 교육기간** 2024년 6월 5일 개강, 6월 12일-14일 현장학습(여수·통영), 6월 20일 종강
- 지원자격** 광주·전남 자치단체 관광 관련 공직자, 이벤트 기획사 임직원 및 관광산업에 관심이 있는 시·도민
- 강의방식** 전문가 특강 5회 / 현장학습(2박3일, 여수·통영)
- 수강료** 250만원(현장학습비 포함)
- 모집기간** 2024년 5월 31일까지
- 문의** 광주매일신문TV본부 062) 650-2024